

농민공 자녀를 바라보는 아동문학의 시선

송연옥*

<目 次>

1. 들어가며
 - 1) 지금 중국의 중심은 어디인가?
 - 2) 중국의 아동문학 정책과 문제제기
2.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을 보는 시선
 - 1) 위태로운 희망에 기대어: 『穿過憂傷的花季』(王巨成, 2008)
 - 2) 사회주의 노동정신을 신뢰하며: 『影子行動』(牧鈴, 2010)
 - 3) 근원적인 해결을 바라며: 『想去天堂的孩子』(胡繼風, 2010)
3. 도시에 사는 농민공 자녀를 보는 시선
 - 1) 농민공을 타자화하며: 『蔥藍色的夏天』(李學斌, 2011)
 - 2)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鳥背上的故鄉』(胡繼風, 2010)
 - 3) 마주보기를 꿈꾸며: 『樓上的你和樓下的我』(胡繼風, 2010)
4. 나가며

1. 들어가며

1) 지금 중국의 중심은 어디인가?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국가이다. 지금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당내 확고한 권력 장악과 혁신 추진을 기치로 내건 시토크라시(Xitocracy)¹⁾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가히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있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강사

1) 習式治理. 「한국경제」(2017.8.15.일자)는 미국의 외교정치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서 명명한 'Xitocracy'를 인용하여 '공산당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당내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주석의 통치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동아일보」

다고 할 수 있는 중국, 그 중국의 중심은 어디일까? 시인 박노해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며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고 노래했다.²⁾ 시인의 논리로 생각해볼 때, 오늘날 중국의 중심이 되는 곳은 국내외적으로 영예로운 경제 성공신화와 통계수치 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프고 약한 국민이 있는 곳,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곳일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거대도시는 많은 일 자리를 창출해냈고 염가의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더욱 신속히 팽대해졌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임시거류증(暫留證)을 들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철세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농민공(農民工)이라 부른다. 오늘날 대다수의 농민은 자신을 운명에 내걸고, “죽어도 도시에서 죽고 다음 생에는 농민으로 태어나지 말자는 일종의 격앙된 심정”으로 경작지를 버린 채 도시로 떠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도시 품팔이에 최적화하기 위해 아이와 늙은 부모를 남겨 두고 떠나는데 “도시에서 품을 팔 때 도시의 각종 잡부금을 부담하고 농민으로서 인두세까지 부담해야 하며, 비도시인이 도시에서 일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몇 천 위안에서 몇 만 위안의 찬조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³⁾ 이렇게 시골에 남겨 둔 그들의 자녀를 유수아동(留守兒童)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농민공들은 자녀들을 도시로 함께 데리고 와서 농민공 전용 자녀학교(農民工子弟學校)에 보내는데 이들은 생활비 때문에 도시 주변부의 판자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공과 유수아동은 시장경제체제 이후 생겨난 거대한 무리의 신흥 사회계층이다. 부모의 부재에 따른 유수아동의 상실감과 절망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욱 우려된다. 유수아동들은 매년 익사나 교통사고, 실종이나 화상에 의해 높은 사상자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2017.10.23.일자) 논설주간 김순덕도 마오쩌둥 이후 최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의 통치를 시황제주의(Xitocracy)라고 명명하며 동아시아 정치현황을 논하였다.

2) 박노해, ‘너 거기 서 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걸음, 2010, 327쪽.

3) 리창평, 『농촌의 위기』, 『고쳐하는 중국』, 서울: 길, 2006, 262쪽.

4) 譚凱鳴, 『世紀關懷—中國農村留守兒童調查』,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12, 24쪽.

지금 중국의 중심은, 이렇게 현실 안팎의 상처와 위협에 맨살로 노출되어 있는 거대한 무리, 바로 농민공의 자녀들일 것이다. 농민공 자녀문제는 빈부와 도농격차의 현실적인 모순이 집적된 곳, 포스트 사회주의의 민낯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창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의 동년기가 방기되고 유린되고 있을 때,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상처가 묵인되고 있을 때, 중국의 아동문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 중국의 아동문학 정책과 문제제기

아동문학은 '아동을 위하여'라는 가치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문학관을 달리해 왔다. 인류의 아동문학사에서 볼 때, 그것은 아동을 '교육중심의 피동적인 곳에 위치시키는 관점'에서 본성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아이를 '주동적인 곳에 위치시키는 관점'으로, 아동문학을 일반문학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문학 본연의 것으로 향유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중국 아동문학 역시 사회주의 문학체제 울타리와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동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아동문학 발전의 본질은 무엇이 아동의 진정한 성장인가를 해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작가와 그 작가가 발 딛고 있는 사회의 성장과도 밀접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작가들은 대다수가 작가협회(作家協會)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문학기구나 문학인협회는 일종의 서비스 기구이지만 중국의 작가협회는 정부의 행정기구이다. 다시 말해 작가협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문단에서의 지위나 창작 수준이 행정차원에서 관리된다는 것이고 출판되는 문학작품도 당국의 문화가치에 의해 검열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여타 문예처럼 아동문학도 정부의 국가 정책을 문학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창작 주제와 방향을 결정해왔다.

중국의 아동문학사에 있어서 전략적인 정책 변화는 작가협회를 주축으로 개최된 문인들의 '창작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발표되었다. 최초의 창작회의(第1次全國

兒童文學創作會議, 1986)는 문화대혁명 종식 후에 열렸다. 주된 안건은 황폐해진 아동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창작회의(第2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 2000)는 90년대에 나타난 자본주의 색채의 자율적인 문학성향, 이를테면 사회주의 사상성 보다는 아동의 가독성과 유희성을 중시하는 창작 변화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류공영의 세계적인 아동문학으로 나아가자는 밀레니엄적인 취지도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화와 경제성장이란 화두는 90년대 당시 장려되는 시대적인 가치였고 도시 아동과 청소년의 소비문화·대중문화·도시생활에 치중한 이야기가 공전의 베스트셀러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개방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경제적인 수익 효과도 실하게 거두는 도시 색채의 아동문학이 비로소 각광받는 엔젤산업의 주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아동문학은 정치성, 교육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며 문학 본연의 성격을 되찾아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농민공 부모와 자녀들의 삶은 아동문학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다. 심지어 농촌을 신성시하며 건국된 사회주의 정부, 그 정부의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 관방의 아동문학상 수상작에서조차 농촌과 농민공 자녀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민공 자녀문제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이 중시되기 시작하였고, 세 번째 창작회의(第3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 2004)에서는 '농촌 소년아동의 생활에 집중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조화로운 사회로 지향하자'는 발언이 제기되었다.⁵⁾

흔히 작가는 '탄광의 카나리아', '잠수함의 토끼'로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문학이 사회의 불의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통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문학 작가들은 '중국의 중심'에 서서 어떻게 농민공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작가 본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지는 그 작품이 출판되고 소비되는 공동체의 권위가 투영되기 마련인지라 사회주의 체제의 작가 개인의 표현 속에도 관방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자율적인

5) 金炳華, 「爲未成年健康成長營造良好文學環境進一步發展繁榮兒童文學事業—在第3次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上的講話」, 『光榮與使命—2004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論文集』, 明天出版社, 2005年 7月版.

예술관과 관방 이데올로기 사이에 생성된 장력 사이에서 작가는 어린 독자들에게 농민공 자녀 문제를 어떻게 편집하여 들려주고 있는가? 어떠한 문학적 카타르시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 때 작가는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작가의 서술상황에 주목하며 제라르 주네트의 '초점화자(Narration et focalisation)'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초점화자는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위치를 통해 텍스트의 사건을 인지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사건의 기록자이며 사건을 비추는 카메라에도 견줄 수 있다.⁶⁾ 작품에 따라 초점자(focalizer)와 서술자(narrator)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서술자 겸 시각 주체가 일치된 경우도 많고 한 작품의 서술 형식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작품을 섬세하게 읽기 위해 활용하는 정도로 이용하려고 한다. 텍스트는 농민공의 자녀 중 농촌에 남겨진 경우와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대표할 수 있는 것,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아동소설로 선정하였다.⁷⁾

2.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을 보는 시선

1) 위태로운 희망에 기대어: 『우울한 사춘기를 넘어』(王巨成, 2008)

『우울한 사춘기를 넘어』의 중심인물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싱얼(女, 星兒)과 천권(男, 陳軍)이다. 산을 넘어 학교에 가야하는 싱얼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학교에 자주 늦게 되자, 천권이 싱얼을 태워 함께 통학하면서 둘의 우정이 시작된다. 할머니가 부재한 틈에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싱얼의 상처와 삶의 목

6)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좋은날, 2001, 147쪽.

7) 李學斌, 『蔚藍色的夏天』, 廣州: 新世紀出版社, 2011; 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 明天出版社, 2008; 牧鈴, 『影子行動』, 北京: 中國少年兒童出版社, 2010; 胡繼風, 『鳥背上的故鄉』(<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중 단편소설 「鳥背上的故鄉」, 「樓上的你和樓上的我」, 「想去天堂的孩子」이다. 본문에선 번역한 제목으로 명기한다.

표 없이 불량배들과 떠돌던 천권의 공허함은 둘의 우정으로 회복되어간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곳은 또래의 우정뿐이다. 그래서 불법 낙태로 생명이 위협했던 친구를 위해 동동거릴 때도, 한밤중에 아픈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때도, 허리 구부러진 창(常)씨 할아버지가 홀로 농사를 지을 때도, 상처 입은 아이끼리 우정에 기댄 연대의식으로 문제에 맞서 나간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는 전지적인 작가 서술로 싱얼과 천권을 둘러싼 인물군상의 심리를 꿰뚫어 묘사하며 심지어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 장에 발생할 이야기를 알려주기도 한다. 만약 초점화자가 주요인물로 고정되었다면 그(그녀)의 입장에 서만 바라보게 되어 농민공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소설 전체에서 전지적인 목소리는 중심인물부터 주변인물까지 그 모두의 시각으로 농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얼은 도시에서 버는 돈을 고향과 부모,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는 부모들의 의식이 농촌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농민공 부모는 도시인처럼 살고 싶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농촌을 버리고 싶어 한다. 이처럼 다양한 농촌 인물 군상의 목소리와 시각을 통해 농촌의 삶은 총체적이고도 다성화(多聲化) 되어 다가온다. 그 중 싱얼의 담임선생님은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농민공의 삶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식인으로서 농민공 자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투사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떡해서든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떡해서든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떡해서든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시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떡해서든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⁸⁾

작가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부모세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출로는

8) 能读书, 一定要读书! 能考上高中, 一定要考上高中! 能考上大学, 一定要考上大学! 能出走乡村, 一定要出走乡村! (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 明天出版社, 2008, 196쪽.)

공부뿐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지식인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자로서의 안전한 생활 속에 묻힌 제한된 호소이다. 실제 유수아동이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거리가 있다.

싱얼과 천권이 실제로 기뻐던 연대의식은 청소년기의 순수한 희망에 닿아 있다. 서술자는 이 아이들의 감정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매간의 우애' 같은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순수함이란 것이 태생적으로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결국 소설은 어른들의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로 끝난다. 싱얼을 데리고 도시로 떠나는 부모는 우물을 아예 메워버린다. 우물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과거에 풍요로운 생산을 베풀어주던 '어머니 농촌'의 자궁을 메우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결말이다.

본 소설은 중국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에 남겨진 자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재편성하여 체념의 태도와 위태로운 희망 사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농촌의 고단한 삶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판의 날을 당대 정권에 돌리기보단 작가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농촌 아이들의 유일한 출구가 공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는 기껏해야 성적이 좋은 극소수의 학생만이 가까스로 가능하다는 현실 앞에 힘을 잃는다.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체념적 태도이다. 작가가 작품 안에서 농촌의 대안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기껏해야 소년과 소녀 사이의 우정이었다. 이 위태롭고도 연약한 희망을 품고 작가는 농촌과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꽃이 필 때처럼 아름다운 성장기(花季)'를 '우울하고 아픈(憂傷)'이란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는 제목(『우울한 사춘기를 넘어 穿過憂傷的花季』)의 역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지식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한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정신을 신뢰하며: 『그림자 행동』(牧鈴, 2010)

쌍둥이 마밍(馬明)과 마량(馬亮)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농촌에서 살고 있다. 마밍과 마량은 여덟 살 때부터 농사일을 해서 부모를 돕고 이를 놀이로 삼는 신체

건강한 중학생들이다. 어느 날 이들은 문이 잠겨있는 교실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잔뜩 쌓여 있는 책들을 발견한다. 교과서가 아닌 책들을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들은 왕성한 호기심으로 이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하는데 독서경험을 통해 지식의 황홀함을 체험하게 된다. 둘은 그 이후로 줄곧 전교에서 1등을 번갈아 하고 늘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된다. 그 후 쌍둥이는 명문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나란히 합격했으나 부모의 빚 때문에 둘 다 등록하기 힘들다. 이들은 부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닳은 일관성 쌍둥이의 특징을 이용하여 일주일씩 교대로 한 사람은 학교로, 한 사람은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한다. 또한 같은 사람인 척 하기 위해 둘 사이의 생각을 최대한 공유하고 개성을 맞춰간다. 한 사람만 공부를 잘해도 안 되기에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뛰어난 성적을 유지한다.

『그림자 행동』의 초점화자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왕성한 동생 마량이다. 시골 소년의 기개와 성격이 선명한 마량이 서사의 주체이다 보니 글 전체에서 활기차고 소년다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량보다 어른스럽고 늘 반장을 도맡아 해 온 형 마밍의 시선은 일기형식으로 삽입되어 장마다 교차 서술된다. 농촌의 학교현황과 농민공 자녀의 삶은 두 소년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인지되는데 이들의 관점은 사람들이 농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것과 크게 다르다.

농촌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의 빈약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입시에 나오지 않는 예체능 과목을 교과과정에서 없애버린다. 학교 공부시간조차 집안의 농사일로 빼겨버리기 일쑤이니 아이들이 시험공부 할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기증자들이 이 학교로 보낸 책들과 영상자료까지 모두 감춰놓는다. 그러나 쌍둥이는 교장이 읽지 못하게 했던 책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도시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열등한 시골의 교육제도에서 독서가 대안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두 소년은 낙후된 '농촌 학교'가 아니라 낙후된 '교육자'를 비판적으로 본다. 우수아동들을 보는 태도도 다르다. 다음은 마밍의 일기를 발췌한 것이다.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장애와 어머니가 병약함이 오히려 우리 형제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이런 애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훨씬 많다. 개네들과 그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는 많은 적든 매달 그 부모가 부쳐준 돈을 받을 수 있어 브랜드 옷이나 신기한 장난감을 사는데 돈을 쓰며 멋지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볼 수 있다. (...) 이런 것을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큰 액수의 지폐를 주는 순간, 자식을 그 돈에 내줘버리는 것이다.⁹⁾

초점화자는 농민공 자녀 문제의 원인을 농민공 부모에게 두고 있다. 자식의 삶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아버지의 장애와 가난한 삶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본다. 쌍둥이들이 노동을 놀이삼아 즐기게 된 이유는 '자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 때문이었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동력이 된 것이다. 이들에게 절름발이 부친은 힘없고 가난한 농촌과도 같다. 마밍, 마량 형제는 인간을 품어주고 그만큼 되돌려주는 고향 농촌을 사랑과 은혜가 있는 부모의 품으로 본다. 시골을 '탈출해야 할 곳', '과도 돈이 안 나오는 곳'이라는 일반적 관점의 대척점에 서서 '은혜를 갚아야 할 곳', '공부하고 성공해서 다시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한 도시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공부한다.

작가 무림은 농촌의 우울한 현실과 불편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과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신인'을 문학의 전범으로 삼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勤工儉學)' 주제를 호소하는 노동문학과 궤를 같이 한다. 막심 고리키의 노동소설, 1980년대 관등잉(關登瀛)의 『서부유랑기』를 연상케 한다. 낙후된 농촌 교육이란 현안에 있어서, 작가는 당의 잘못된 교육 시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 개인의 무지로 돌린다. 농촌이 힘들어 떠날 수밖에 없는 농민공들의 처지에 공감하기보다 노동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내지 못

9)说起来有点儿残酷——父亲的残疾和母亲的多病，居然成就了我们兄弟俩童年的幸福!(...)这些留守儿童远比我们富有。他们和他们的爷爷奶奶每月都能收到父母或多或少的汇款，可以用名牌的衣服、新奇的玩具来装点他们的生活，可是，我仍然能从他们的眼光中看到我们的羡慕。(...)我不知道这是不是可以叫做堕落。可责任在谁呢，父母在给他大把钞票时，也把他扔给了钞票。(牧鈴, 『影子行動』, 北京: 中國少年兒童出版社, 2010, 24쪽.)

하는 개인의 한계로 바라보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마밍과 마량처럼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도 노동을 해낼 수 있는 시골소년은 얼마나 될까? 또 농촌에 필요한 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소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결국 이 논리라면 살기 힘든 농촌에서도 공부 잘 하고 힘 센 남아만이 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에 마밍과 마량 형제의 비밀이 발각되어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려 하자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 친구들은 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준다. 이렇듯 건설히 노동하고 공부하는 자라면 사람들을 속이고 학교 규율을 어겼어도 인정상 용인해준다는 사회적 가치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가는 그야말로 농촌과 노동으로 세워진 사회주의 정부의 건설함을 신뢰하는 편에 서있다. 이 바탕 위에서 농민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3) 근원적인 해결을 바라며: 『천당에 가고 싶은 아이』(胡繼風, 2010)

작은 시골 학교에 자선사업가가 찾아와 6.1일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수아동 2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어린이날에 부모님이 일하는 쑤저우(蘇州)로 데려가 큰 식당에서 밥도 먹고 놀이공원에도 갈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교장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가장 먼저 쑹쑹(壯壯)을 명단에 올렸다. 쑹쑹은 그 학교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우수아동이다. 아빠는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쑤저우의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인 엄마와 연로한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남은 쑹쑹은 일찍 철이 들어 집안일을 잘 돕고 학교 성적도 빼어난 우등생(三好生)이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쑹쑹을 보내려 해도 그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쑹쑹의 아버지는 명절에 오가는 차비를 아껴 가족들에게 좀 더 돈을 보내려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같은 이유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다. 내일까지 아버지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면 어린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쑹쑹은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다. 아들과 함께 일하는 마을 사람이라면 연락처를 알 거라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쑹쑹을 데리고 그 집에 찾아간

다. 과연 쥬쥬의 아버지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명절마다 집에 들르고 집에 전화도 있어 소식을 자주 전하기 때문에, 쥬쥬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집 아내는 모른다고 잡아챈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한 자기아들이 실망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쥬쥬는 그 밤에 아빠에게 전화가 오는 기적을 기다리며 공용전화기가 있는 마을의 작은 매점 앞에서 잠이 든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도 전지적 작가 서술을 하고 있다. 초점화자는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쥬쥬, 손자를 불쌍히 여기는 할아버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교장, 공부를 못 해 어린이날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한 아이 어머니의 심리를 치밀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자는 언뜻 같은 농민공의 처지이면서도 쥬쥬 아버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마을 사람을 원망할 수 있다. 초점화자는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한 아이 어머니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원잉에게 분노, 질투, 걱정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분노는 자기 아들 창창에게 생겨난 것이고, 질투는 쥬쥬에게 느끼는 것이었으며, 걱정은 자기 남편 때문에 하게 되었다. 일단 쥬쥬가 쭈저우에 가게 되어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라도 된다면,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자기 남편은 자기 마음과 똑같이 착잡할 것이다. 지금 쥬쥬가 그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쥬쥬나 창창이 똑같아진 것이니, 둘 다 쭈저우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¹⁰⁾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 독자들은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한 창창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일명 자선사업가(愛心人士)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프로젝트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장치이다. 사회에서 소위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라고 부르는 우수이동은 뭐란 말인가? 이 자체가 도시인의 시각에서 농촌의 가난과 불행을 대상화하고 관념화하

10) 这让云英的心里又气又妒又担心。气的是强强，妒的是壮壮，担心的是自己的丈夫福顺：一旦壮壮到了苏州，见了丰收，那福顺的心情一定也会和自己一样很难受的。幸好现在壮壮跟他爸爸丰收联系不上了，壮壮跟强强都一样了。都去不成苏州、探不成亲了。胡繼風，《鳥背上的故鄉》，2010(<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는 것이다. 더 불행해야, 더 가난해야, 그러면서도 공부는 잘해야만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중국 사회에 크고 작은 봉사활동과 자선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그 본질이 농민공 자녀를 위한 프로젝트이면서도 오히려 이들 사이에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일게 한다면, 자선사업가 자신의 자기만족과 선행에 그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작가는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농민공 자녀의 문제는 누군가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침이다.

황광은 밤새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잠을 쫓으려고 장계(張繼)의 『楓橋夜泊』을 외며, 선생님이 천당처럼 아름답다고 말한 쭈저우에 가고 싶어 한다. 과연 쭈저우는 천당이란 말인가? 그리워도 아버지를 돌려보내지 않는 곳, 내 고향 사람들을 이간시키며 고혈을 뽑아가는 곳이며 꿈에서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 형상은 아이가 모기에게 뜯기며 비몽사몽간에 잠든 모습을 통해서 은유된다. 작가의 시선은 농민공 자녀들과 남은 어른들을 다각적으로 살피며 도시가 생각하는 '전형적이고 도와줄만한 농촌 아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흔히 농촌 구제 프로젝트로 정부와 기업이 벌이는 여러 활동들을 경계하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예리한 필체로 정부의 농촌 교육, 현실에 대한 시책에 우회적인 비판을 던지고 있다.

3. 도시에 사는 농민공 자녀를 보는 시선

1) 농민공을 타자화하며: 『쪽빛 여름』(李學斌, 2011)

농촌에서도 부지런하게 돈을 벌어 트럭을 사고, 도시에 집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있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지만 주인공 러샤오(樂梟)는 이렇게 능력 있고 부지런한 부모님의 장남으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시골 소년이다. 그러나 러샤오가 도시 학교에 전학 오고 나서 상황은 달라진다. 한 반에 러샤오처럼 부모가 농민공인 아이는 단 한 명 있을 뿐이고 도시 아이들은 러샤오

가 사투리 쓴다고 놀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하며 불러댄다. 가사 도우미, 공사판의 잡부, 배달원, 거리의 미화원 등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민공들과 본인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인 러샤오의 눈에는 이 모든 원인이 아버지가 고위직 간부라고 자랑하며 자신을 놀리는 차오핑(曹鵬) 무리에게 있다고 본다. 러샤오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빈병을 모아 버리거나 칠판 지시봉을 매달 수 있도록 못을 박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이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한다. 농민공 부모를 닮아 반에서도 부지런하다는 거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던 러샤오도 이제 도시 아이들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된다. 공교롭게도 러샤오의 엄마가 차오핑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러샤오의 시선은 담임선생님의 특별수업으로 변화를 보인다.

“지금 우리 도시는 농촌에서 온 삼촌, 이모, 오빠, 누나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의 검소함과 부지런함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경의를 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반의 뤼요나 러샤오 같은 경우죠. 그들의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코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그렇그렇 땀들었으나 나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꼭 참았다. 옆의 뤼요는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¹¹⁾

담임선생님의 수업은 차오핑과 반 아이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도시인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던 러샤오 자신을 반성하게 했다. 그러나 이

11) 我们的城市现在一天都离不开农村来的叔叔、阿姨、哥哥、姐姐，是他们让我们的城市更加美丽、清洁了，是他们给我们的生活带来了许多方便。而且，他们的朴实和勤劳也让我们看到了自己的不足。因此，我们不仅没理由嘲笑、贬低他们，还应该向他们致敬！向他们的家庭致敬。比如，在我们身边，陆佑同学、乐泉同学就是这样的。他们的爸爸妈妈都非常了不起，他们为了替子女创造更好的学习条件，承受了很大的生活压力。我的鼻子酸溜溜的，泪水在眼眶里打转。但我强忍着，不让他掉下来。旁边的陆佑伏在桌上哭出声来。(李学斌，《蔚蓝色的夏天》，广州：新世纪出版社，2011，97쪽.)

의식의 흐름에는 도시가 교육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편리한 곳이라는 작가의 전제가 담겨있다. 도시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공이 계속 필요하고 그들이 적은 임금으로도 성실히 고된 일을 하고 있으니 기꺼이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하며, 그들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삶의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작가는 농민공과 그 자녀들을 위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농민공을 타자화하는 도시인의 시각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화려한 도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시인의, 도시인의 의한 시각일 뿐이다. 물론 소설은 5학년 소년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고 아동문학이 아이들에게 현실의 부조리를 무조건 다 드러내어 보일 필요도 없다. 아이들에겐 그런 것에서 보호될 권리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포스트사회주의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의 수업 한 번으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뤼샤오의 어머니가 하필 차오핑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설정도, 그 집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받게 된 것도 작위적인 면이 있다. 이 소설은 농민공 자녀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도시학교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나 선생님을 비롯한 제도 교육과 도농 간의 빈부격차를 체제 안에서 긍정하며 비판의 시각을 상실한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2)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 등 위의 고향』(胡繼風, 2010)

이 소설은 제목에서부터 고향의 의미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명절을 쇠러 고향을 찾는 농민공 가정의 지난한 여정을 슬프고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쓰하이(四海)네는 3일 내내 줄 서서 기차표를 사려해도 표를 구하지 못했다. 값이 3배가 웃도는 암표를 사느니 차라리 식당 배달용 삼륜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고향에 가기로 결정한다. 세 식구는 갖은 고생 끝에 떠나면 고향에 도착하지만 고향은 쓰하이에게 낯설기만 하다. 왜 이 고생을 하고 고향을 찾아야 하는가? 고향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향이란 바로 마음속에 담긴 생각 같은 거야. 한 사람이 일생동안 떨치려야 떨칠 수 없는 곳이지. 그것은 햇빛과 이슬을 조금이나 더 받아보겠다고 나뭇가지가 더 높게 뻗어대도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야. 벌레를 먹으려고 새가 아무리 높게 날아다녀도 그 등지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과 같지.”¹²⁾

쓰하이의 아버지는 고향이 뭐냐고 묻는 쓰하이의 말에 위와 같이 답한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동의하는 고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이다. 그러나 초점화자는 초등 3학년 쓰하이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고향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고향이 아버지의 말과 같은 것이라면 나의 고향은 대체 어디인가? 도시는 내가 태어나고 숨 쉬며 먹고 사는데도, 도시 호구(戶口)가 없다며 날 받아주는 유아원과 학교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이란 곳에서는 내가 도시 아이라며 이상한 말투를 쓴다고 놀리지 않는가? 아이는 계속해서 묻는다.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는 게 고향이라던데 나는 어느 곳의 주인일까? 결말부에서 아이는 스스로 답을 찾는다. 자신의 고향은 바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임시거류증을 들고 다니는 ‘길 위’, 때를 따라 이동하는 ‘철세의 등 위’라고 말한다.

어린 소년의 시각으로 편집된 농민공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좀 더 근원적으로 고향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다 절제되고 담담한 어조로 농민공 가정의 복지와 도시호구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아이의 이름이 ‘세상 곳곳을 누비는(四海)’ 뜻을 담고 있는 것도 상징적이다. 그러나 농민공 자녀가 던진 고향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상 답이 없다. 아이 혼자 힘으로도 부모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중국 사회의 해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아이의 순수하고도 정직한 시선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에 맞는 답변을 촉구하는 예리하고도 직접적인 작가적 시선이다.

12) “家乡就是一个人心里的想头，就是一个人一辈子也丢不开的地方……这就好比想多争一点阳光跟露水的树枝，伸得再高，也撒不开根；也好比想多寻一点粮食跟虫子的鸟，飞得再远，也忘不了窝。” 胡繼風, 『鳥背上的故鄉』, 2010(<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3) 마주보기를 꿈꾸며: 『위에 사는 너, 아래에 사는 나』(胡繼風, 2010)

『위에 사는 너, 아래에 사는 나』의 초점화자는 도시의 주거지역을 카메라 렌즈처럼 바라본다. 32층짜리 초호화 아파트가 우뚝 서있고 동시에 농민공들이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이 익스트림 통컷처럼 한 장면 안에 다 담긴다. 단단(丹丹)의 아버지는 경제위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포장마차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다. 단단은 전기세를 아끼려고 가로등 밑에 밥상을 가지고 나와 숙제를 한다.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 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제기를 차고 논다. 32층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사는 잉잉(莹莹)은 시력을 위해 종종 창밖을 내다보라는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밖을 내다보다가 단단이 제기 차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관찰 결과 단단네의 형광등이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용돈으로 예쁜 스탠드를 사서 가져다준다. 이로써 도시의 공주 잉잉과 농민공이 딸 단단은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된다.

도시의 골드칼라라고 할 수 있는 30대 금융계 비즈니스맨 마커(馬克)도 창밖을 내다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자기 윗층집 아이가 농민공 아이와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제기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가정환경과 빈부격차에도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웹상 토론에 올린다.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시의적인 화제라 생각하던 기자가 석간신문에 단단과 잉잉의 사연과 사진을 게재한다. 잉잉의 어머니는 부모가 바라는 길을 착하고 착실하게 따르던 딸이 농민공 딸과 어울리는 것도 걱정인데 그것을 칭찬하는 신문기사가 화제가 되자 둘을 때내기 위해 끝머리를 앓는다.

이 소설은 매우 시각적이다. 초중반까지 초점화자는 농민공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늘처럼 높은 도시인의 호화주택에서 지상의 누추한 판자촌을 내려다본다. 흡사 부감촬영 같은 이 시각으로 인해 농민공의 삶은 더 작고 요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초점화자는 단단의 어머니로 전환된다.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윗층 소녀 最美樓上小女孩’라는 기사제목으로 실린 자기 딸의 이야기를 읽고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도움 받는 쪽이 가난한 집 아이라고만 생각할까? 왜 사람들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만 가난한 아이를 바라볼까?”¹³⁾

부잣집 아이가 스탠드도 선물하고 안 입는 옷도 주고 공부를 가르쳐준 건 분명 사실이지만, 단단도 잉잉에게 재미있는 시골 이야기를 들려주어 식견을 넓혀주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싫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잉잉의 말을 잘 듣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으며 또래로서 현명한 조언도 해주었다. 또 제기 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런데 기사는 아이들의 우정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유한 자의 대단한 선행으로 바라보며 일방적이고도 수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단단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상처 입을까 봐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시선을 주동적으로 끊어낸다.

작가는 도시인과 농민공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른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공고화(鞏固化)한다. 그러나 아이는 지혜롭게도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다른 아이와의 거리를 단축해 바라본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아래로 내려와 육안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바라본다. ‘아이들의 우정’은 도시인과 농민공 사이의 비대칭적인 시선과 요원한 거리를 단번에 허물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대안이다. 그러나 부유한 도시인은 ‘아이들의 우정’을 진로를 망치는 우려로, 가난한 농민공은 상처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제3자는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는 미담으로만 해석한다. 위에 사는 도시 아이와 아래 사는 농민공 아이의 우정과 이별을 통해 작가는 이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더욱 편차가 생기고 있음을, 작은 우정에 기대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사회의 농민공 문제는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들 각각의 시각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13) 可是为什么穷孩子跟富孩子在一起的时候, 别人只看到受帮助的是穷孩子呢? 为什么大家总爱用同情和可怜的眼光看待穷孩子呢? 胡繼風, 『鳥背上的故鄉』, 2010.
(<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4. 나가며

우리에게 중국의 농민공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는 그다지 낯설지 않다. 중국의 상황이 좀 더 특수하기는 하지만 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해 온 한국의 현실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명 '열쇠죽'이라 불리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방과 후에 홀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와 시간을 보내거나 학원가를 전전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의 농민공 이야기를 읽어 가면 우리사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황들을 무의식적으로 견주게 되고, 중국에는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재구되며 중국이란 사회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

농민공 자녀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웃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Made in China'가 바로 이 농민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첨가제품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동시에 농민공 자녀들의 무수한 눈물과 상처를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의 '아픈 중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진정 성숙한 어른은 아픈 자들을 공감하고 함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니 아동의 문제를 한 사회의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작가들은 농민공 자녀의 문제를 사회적인 의미망에서 걸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든, 비판하는 것이든, 자기 자조적인 것이든, 고발하고 드러내는 차원의 것이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관점으로 농민공 자녀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농민공과 유수아동의 이야기는 대부분 리얼리즘으로 다루어졌다. 앞으로 포스트 사회주의의 간극 속에서 농민공의 문제를 다룬 판타지적인 카타르시스가 생겨나길 바라며 판타지 아동문학의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아동의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시각들이 모이고 모여 아동독자와 성인독자 안에 깃들고, 더욱 나은 해결책이 태동되고 자

라나기를 바라본다.

〈參考文獻〉

- 胡繼風, 『鳥背上的故鄉』(<http://bxwx.org/b/33/33379/5393709.html>)
李學斌, 『蔥藍色的夏天』, 廣州: 新世紀出版社, 2011.
牧鈴, 『影子行動』, 北京: 中國少年兒童出版社, 2010.
譚凱鳴, 『世紀關懷—中國農村留守兒童調查』,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12.
王巨成, 『穿過憂傷的花季』, 濟南: 明天出版社, 2008.
王泉根 主編, 『中國兒童文學60年』, 湖北少年兒童出版社, 2006.
金炳華, 『光榮與使命—2004全國兒童文學創作會議論文集』, 明天出版社, 2005.
박노해, '너 거기 서 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걸음, 2010 .
송연옥, 「1980년 이래 중국 아동청소년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수잔 스나이더 랜서, 『시점의 시학』, 좋은날, 2001 .
왕후이 외, 『고쳐하는 중국』, 길, 2006 .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0.
최윤정, 『슬픈 거인』, 문학과 지성사, 2004.
카롤린 퀴엘, 『중국을 읽다』, 푸른숲, 2011.
『창비어린이』, 창비, 2012, 겨울호.

〈Abstract〉

The Problems of Migrant Workers' Children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s Literature

Song, Yun-Ok

One cannot realize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of one's body is the part that it hurts until one is sick.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China nowadays

can be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children, very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exposed to danger and many difficulties.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children lies where realistic absurdities of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r of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get together, and where post-socialism reveals its ugly nature.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how Chinese writer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children.

In a tension between autonomous artistic viewpoints and socialist ideology, some writers have advocated and trusted socialist system attempting to give hope to migrant workers' children. There have been positive ways to look at an urban myth by otherizing migrant workers in the viewpoints of urbanites. There also have been negative ways to see the problems of migrant workers in the viewpoints of children by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Some writers have seen the dead-end problems of migrant workers in a self-depreciating way.

Migrant workers' children have been described in a realistic way mostly, however, I hope they can be the characters in fantasy literature which helps them overcome hardships of their lives through experiencing catharsis. I also hope not only children but also adult readers can come across various stories and viewpoints of migrant workers' children and we can find out better solutions for the problem.

Key words: Chinese children's literature, 'The new-era' Chinese children's literature, Migrant worker's children, Focal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y and city of China

이 논문은 2018년 4월 12일에 접수되어 2018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5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